

도전, 새 세상

송병화

“안녕하세요? 두 분과 인연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직도 어리바리 사돈님을 알아가는 중인데 또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군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더 미뤘다가 식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양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혼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청첩장을 보내는 결례를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줄무늬 한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러 쓴 손편지와 함께 신혼부부 그림이 박힌 청첩장이 도착했다. 모바일 청첩장이 바쁜 시대를 대변하는 요즘 보기 드문 우편물에 나는 감격했다. 생각해보니 바깥사돈은 작년 딸아이 결혼식 때도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 진행자가 읽어준 주례사로 하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잔잔한 감동을 준 분이다.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는 불안해.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걱정되네” “그래도 사돈네 혼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지.” 남편과 결혼식 참석 여부를 두고 짧은 고민이 오갔다.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나는 코로나가 출현한 이후 거의 두문불출하며 자가격리에 버금가는 집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대중과 노출되는 외출이 두려운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예식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한복판이라 신경이 곤두섰다. 질병관리본부의 수칙을 잘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예식장 관계자의 말을 전화로 확인하고 나서 나는 코로나 발생 이후 첫 번째 외출을 시도했다. 예

식이 진행된 호텔 내부는 둥근 테이블을 띄엄띄엄 몇 개씩만 배치하고 적은 인원만 앉도록 의자 수도 많지 않았다. 초대된 손님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친인척들이 대부분이었다. 호텔 직원들은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담긴 접시를 양손에 들고 테이블마다 가져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손님들은 이동할 필요 없이 가족끼리 단출하게 식사하고 자리를 뜰 수 있었고 나의 지나쳤던 걱정도 다소 누그러졌다. 다만 예식 시간 단축으로 주례사와 식순이 많이 생략되어 새 출발의 무게와 엄숙함이 가벼워진 듯한 아쉬움이 있었다.

코로나 그림자에 막혀 봄에 예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의 청첩장은 가을이 되자 우편함을 두드리며 나의 두 번째 외출을 끌어냈다. 이종사촌 혼사이기에 빠질 수 없어 마스크를 누르고 또 눌러 쓰며 예식에 참석했다. 첫 외출의 발을 땀 때보다 긴장감이 덜하긴 했지만 군데군데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불안감이 덮쳐왔다. 예식 후 피로연장에 들어선 나는 첫 번째 참석했던 결혼식과는 사뭇 다른 낯선 장면을 만났다. 사람들은 식당 입구에 놓아둔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음식이 놓인 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넓은 접시에 옮겨 담은 후 자리에 앉았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처음 보는 일이라 이토록 불편한 상황을 만든 코로나가 야속했다. 나도 마스크를 쓴 채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서둘러 접시에 음식을 담아왔다. 테이블 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칸막이는 나의 시선을 모두 막아 대화를 차단했고 말없이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수칙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 예식장 측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를 만난 것이 서글퍼졌다. 친인척과 안부 한마디 묻지 못하고 얼굴도 마주하지 못한 채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식사가 아니라 주린 배에 음식을 채워 넣는 일이었다. 코로나가 출현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까지 식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며 우리 혼인 문화도 간소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청망청 마음대로 먹고 수다를 쏟아

내던 축제 같은 피로연 현장은 이제 기억마저 희미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사람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나다니는 일도 절제하라고 코로나는 수시로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낯선 이름이 생활 속에 들어와 익숙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마음까지 멀어지는 고립감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을 호소했고 나 역시 일자리를 잃고 심한 마음 앓이를 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수년간 씬 없이 일하던 나는 봄에 학교문이 닫히면서 설 곳이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사업체와 일하던 남편마저 백수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생계에 위협을 가하면서 몸과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침마다 확진자 현황을 알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알람은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귓가에 꽃혔다. 눈뜨고 시작되는 하루 일과는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갈 곳 없어 묶인 발목에 드리워진 우울한 그림자만이 하루를 지켰다. 오후가 되면 학교로 나서던 버릇이 있어 적응하기 힘들었고 왓자지껄 떠들며 말썽부리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출렁거렸다. 하루해는 너무 길었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성였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동안 바빠서 미루어왔던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하며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시간제 일자리도 불안하여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마음만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동안 친구들을 만나 맛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던 일, 봉사하며 종교활동 하던 일, 지인들과 함께하던 취미생활,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빌려보던 일, 대형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한가득 담아오던 일 등 예사로운 일상은 내게서 멀어져 갔다. 마스크로 얼

굴을 감싸고 종종걸음으로 동네 작은 슈퍼에 들어서 최소한의 생필품 구입으로 근근이 이어가는 생활이 계속됐다.

코로나에 휩싸여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시간은 야속하게 재빨리 흘러갔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봄이 지나갔고 눈물과 섞인 빗줄기가 지루하게 내리치던 여름도 과거 속에 숨어 버렸다. 어느덧 살갓에 스치는 바람이 내 몸속 세포를 깨우며 청명한 가을을 데리고 성큼 들어왔다. 성급한 계절이 나 몰래 내뺄까 조급한 마음에 날마다 수봉산에 올라가 자연이 익어가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언제나처럼 나를 반기는 나뭇잎들은 저마다 고운 색동옷을 갈아 입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시계가 잠시 멈추어 수렁 속에서 헤맬 때 기특한 나무들은 말없이 아픔을 삼키며 환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풀빛 잎, 노랑 잎, 주홍 잎, 갈색 잎, 핏빛을 닮은 빨강 잎까지 서로 다독이며 동행을 약속하고 있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한 잎을 달고 뽐내던 나무에만 눈길을 준 일이 미안해지며 바람과 힘겹게 줄다리기하는 낙엽에 마음이 멈췄다. 제 뭍을 다하고 떠나는 가랑잎조차도 소중한 생명이었음을 그동안 잊고 살았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코로나가 대신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만 보고 달리는 무지함에서 벗어나 멈추어 서서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라는 참회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비대면이라며 거부할 때 나무는 묵묵히 우리를 끌어 안아주었다. 날마다 날마다 만나러 가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이 뽐어내는 피톤치드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었다. 아름답리나무 가득한 길목에서 남몰래 마스크를 살짝 내려도 괜찮다 토닥이며 맑은 숨을 내어주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치명적인 겁을 주며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코로나의 이야기를 이제는 우리가 들어주어야 한다. 나를 위한 일이 곧 너를 위한 배려임을 우리는 마스크를 쓰면서 알았다. 나의 무심한 작은 일탈이 너에게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안겨준다는 것도 경험했다. 밖으로 휘

둘리며 자리 잡지 못한 마음을 이제는 내 안에 차분히 들여놓을 때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일이다.

비대면이라는 일은 이제 흔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내게도 두려움을 걷어내고 희망 신호를 주는 세 번째 외출이 찾아왔다. 내년에도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연수'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일에도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연수에 참석했다. 처음 만나는 전문적인 컴퓨터 용어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섞인 강의를 소화하기 어려웠지만 꼼꼼히 공책에 적어가며 귀에 담았다. 마스크 안에 숨겨진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도 한 공간에 앉아 사람들과 무언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 또한 달라진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진통이라 생각했다. 아마도 코로나가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미지의 세계다.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으며 괴로움도 컸다.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내 삶에 새로운 방식이 들어왔고 의욕의 불씨가 살아났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불편함이 덜어지고 보여지는 바깥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나만 잘살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잘사는 세상이어야 하며 너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달았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사람만을 위해 못 생명과 자연을 훼손한 댓가는 반드시 최악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도 알았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너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너와 나는 하나이며 공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고속열차의 속도만큼 잦은 외출과 바쁜 일상은 사라졌지만 비둘기호를 타고 가며 멋진 풍경을 감상



하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새로 만나는 세계로 걸어가야겠다. 코로나를 원망하고 코로나 전파자들을 미워하며 세상을 한탄하던 어리석은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는 코로나가 전하려는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실천하며 순응해 가야 할 때다. 나의 편리함보다는 앞날 환경을 생각하며 자동차를 세워두는 일도 많아졌다. 걸으니 건강에도 도움 되고 동네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좋다. 절제된 만남으로 나를 돌아보고 가꾸는 시간도 많아졌다. 코로나가 내어준 세 번째 외출이 먼 훗날 내 생애 또 다른 추억으로 기억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나는 컴퓨터와 씨름 중이다.